

교과 만족도 및 관계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공계열 대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대학生的 차이를 중심으로

강은정 (잡스호스피탈대표)¹⁾ 정병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²⁾

국문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生的 전공 만족도를 교과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로 세분화해서 이것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영향 관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이 무엇이나 즉 이공계열 학과 전공인지 인문 사회계열 학과 전공인지에 따라 이들의 영향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샘플은 수도권의 H대학과 N대학 학생들로부터 취득하였다. 이공계열 110명, 인문 사회계열 110명씩 총 22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해 SPSS 24.0과 Process Macro 5.0을 이용하였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계 만족도 역시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과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관계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역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 감소의 폭은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유의한 연구 결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인 시사점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전공 만족도,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취업 스트레스, 이공계열, 인문 사회계열, 조절 효과

I. 서론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대학生的 취업 시장은 두 개의 파도에 휩싸여 역사 직전에 있다. 대학生的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35만명씩 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인문사회계열 학과 출신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뽑는 신입 직원의 80% 이상은 이공계 전공자로 채워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취업 시장에서 대학의 인력 공급과 기업의 채용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미스매치(mismatch)'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인문 사회계열 졸업생의 취업 텃밭으로 여겨졌던 은행마저

1)제1저자: 잡스호스피탈대표, beststory69@hanmail.net

2)교신저자: 경영학박사,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gljoseph@sungkyul.ac.kr

· 투고일: 2021-07-20 · 수정일: 2021-08-16 · 게재확정일: 2021-09-06

도 최근 신입직원 채용공고 대부분이 디지털, IT, 데이터 부문 일색이다. 하나의 예로 KB 국민은행은 2021년 6월 200명 규모의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IT부문' '데이터부문' '경영관리 전문가' 3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뽑았다. 경영관리 전문가 부문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가 조건이기 때문에 대졸 신입은 사실상 이공계만 채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술 분야 제조 대기업의 마케팅, 영업 인력도 이공계 출신이 월등히 많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첨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21.09.06.). 학생 입장에서 보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학 후 전공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때 보다 심한 상황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김희정 외, 2021 ; 정백 외, 2021)를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전공 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상은 포괄적이지 못하고 연구자 본인이 속한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 위주로 한정적이었다. 또한 전공 만족도의 경우 단일한 요인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요인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집단 간 비교 연구(정병규, 2020 ; 한익진, 황보명, 2019)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병행되어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취업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연구 집단을 전공을 달리하는 학생들로 삼고 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집단 1개로 분석하는 것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각적이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 이다.

첫째,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영향 관계가 이공계열 전공자와 인문 사회계열 전공자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전공 만족을 단일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다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을 다차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김계현, 하혜숙(2000)은 전공 만족의 하위 요인으로 5개를 제시하였다. 즉, 전공 학문 관심, 전공 교과 만족, 학교 인식 만족, 학과 인식 만족, 교수-학생 관계 만족이다. 한편, Derry and Brandenburg(1978)는 전공 만족을 일반 요인(일반 만족), 학업 요인(교과 만족), 교수 요인(관계 만족) 3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일반 요인(일반 만족)을 제외하고 교과 만족과 관계 만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1>은 전공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전공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김영선, 이현주(2019)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외모 만족, 전공 만족, 자아 존중감을 도출하고 이들의 영향 관계를 규명함	특정 대학교 학생 110명
김지영, 한채정(2019)	취업 스트레스를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나누고 피부 미용 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 402명
이연숙(2019)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전공 만족도와 외모 만족도로 설정하고 이를 항공 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함	4개 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 240명
한의진, 황보명(2019)	전공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보건 계열과 관광 계열 전공 학생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	관광계열 338명, 보건계열 229명
김경남, 강은희 (2020)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전공 만족 뿐만 아니라 외모 만족 및 자아 존중감과 같은 변수를 도입하여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함	4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194명
정병규(2020)	재학 중 장기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함	장기현장 실습 경험생 100명 실습경험 없는 학생 100명
정백 외(2021)	가족의 지지, 친구, 선배의 지지가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함	전국 대학생 307명
김희정 외(2021)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전공 만족도 이외에 자기 통제, 진로 성숙도 변수를 도입하여 이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함	대학생 2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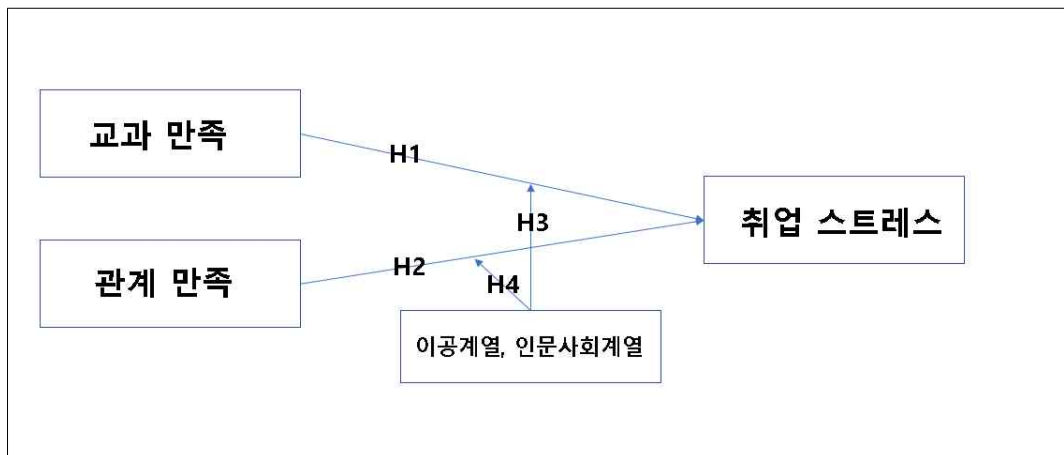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대체로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 놓고 있다(김경남, 강은희, 2020 ; 김지영, 한채정, 2019). 김영선, 이현주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 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김영선, 이현주, 2019). 이연숙 연구도 동일하게 전공 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부(-)의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연숙, 2019). 즉,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다. 한의진, 황보명은 보건 계열 학생과 관광계열 학생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한의진, 황보명, 2019).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병규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기현장 실습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정병규, 2020). 취업 스트레스는 장기 현장 실습을 한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장기 현장 실습을 한 집단의 경우 교과 만족이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스트레스에도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계 만족의 경우 비 실습 집단만 신체적 스트레스 및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전공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전공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공 만족 세부 하위 구성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전공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공 만족도의 하위 요소인 교과 만족과 관계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향 관계가 공학계열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교과 만족, 관계 만족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취업 스트레스를 설정하였다. 영향 관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절 변수로는 공학계열 전공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 2개의 집단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2 가설 설정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전공 관련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남, 강은희, 2020 ; 김영선, 이현주, 2019 ; 김지영, 한 채정, 2019 ; 이연숙, 2019) 한편, 집단 간 비교 분석에 있어서 전공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병규,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교과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관계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교과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관계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 설계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수도권 소재 H대학교와 N대학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 중에 이공계열 110명, 인문 사회계열 110명을 할당 표본 추출하였다. 2021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2>은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측정 항목과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측정 항목 수 및 출처

구분	측정 항목 수	측정 항목	출처
교과만족	5	교과만족1	Derry and Brandenburg, 1978 ; 김계현, 하혜숙, 2000
		교과만족2	
		교과만족3	
		교과만족4	
		교과만족5	
관계만족	4	관계만족1	
		관계만족2	
		관계만족3	
		관계만족4	
취업 스트레스	6	스트레스1	
		스트레스2	
		스트레스3	
		스트레스4	
		스트레스5	
		스트레스6	

3.4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표3>과 같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비교 분석을 위해 이공계열 4학년 재학생 110명과 인문 사회계열 4학년 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3.6%, 여성이 46.4%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들이 주요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 5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기업이 18.2%로 나타났다. 취업에 대한 준비 노력은 조금하고 있다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가 11.4%인 반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9.1%를 차지하였다.

<표 3> 응답자 특성

		빈도	%	누적 %
성별	남성	118	53.6	53.6
	여성	102	46.4	100.0
	전체	220	100.0	
전공계열	공학계열	110	50.0	50.0
	인문 사회계열	110	50.0	100.0
	전체	220	100.0	

취업준비대상	공무원	13	5.9	5.9
	창업	5	2.3	8.2
	대기업	40	18.2	26.4
	중소기업	112	50.9	77.3
	기타	50	22.7	100.0
	전체	220	100.0	
취업준비노력도	열심 노력	25	11.4	11.4
	조금 준비	175	79.5	90.9
	준비 없음	20	9.1	100.0
	전체	220	100.0	

IV.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변수의 정제는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방법으로 하였다. 타당도 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4>와 같다. 본 분석이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KMO 을 통해 살펴 보았다. KMO값이 .784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을 살펴 보았다. 2067.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설명된 총 분산은 70.246%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교과만족, 관계만족, 취업 스트레스 3개의 요인이 <표4>와 같이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 교과 만족 5문항, 관계만족 4문항, 취업 스트레스 6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는 크론바흐 알파값이 .908로 나타났다. 교과 만족은 .891, 관계 만족은 .816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7을 넘었으므로 신뢰성은 확보 되었다. 따라서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측정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요인적재치	회전제곱적재량 (누적%)	Cronbach α
취업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1	.902	28.058	.908
	취업스트레스2	.901		
	취업스트레스3	.881		
	취업스트레스4	.877		
	취업스트레스5	.728		
	취업스트레스6	.660		
교과 만족	교과 만족1	.875	50.427	.891

	교과 만족2	.853		
	교과 만족3	.851		
	교과 만족4	.755		
	교과 만족5	.609		
관계 만족	관계 만족1	.829	70.246	.816
	관계 만족2	.782		
	관계 만족3	.763		
	관계 만족4	.75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8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067.126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4.2 판별 타당성 검정을 위한 상관 관계 분석

<표5>는 상관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된 변수를 중심으로 요인별로 평균치를 구하였다. 이 값을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교과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는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관계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역시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교과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 계수가 -.642로 교과 만족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8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요인들 간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철호, 2017).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과만족	관계만족	취업 스트레스
교과만족	1		
관계만족	.641**	1	
취업 스트레스	-.642**	-.499**	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3 교과 만족, 관계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서 보는 바와같이 본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F값은 80.370으로 나타나 p=.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검정을 위해 설정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가설을 검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검정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5.329	.234		22.760	.000		
교과 만족	-.665	.081	-.548	-8.170	.000	1.698	채택
관계 만족	-.180	.082	-.148	-2.200	.029	1.698	채택

통계량 R : .652, 수정된 R 제곱 : .420 F : 80.370 (P=.000)

첫째, 교과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베타값이 -.548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교과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둘째, 관계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베타값이 -.148이며 유의확률 .029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 관계 만족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이 둘의 영향 관계는 관계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교과 만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4.4 교과 만족, 관계 만족과 취업스트레스간 조절효과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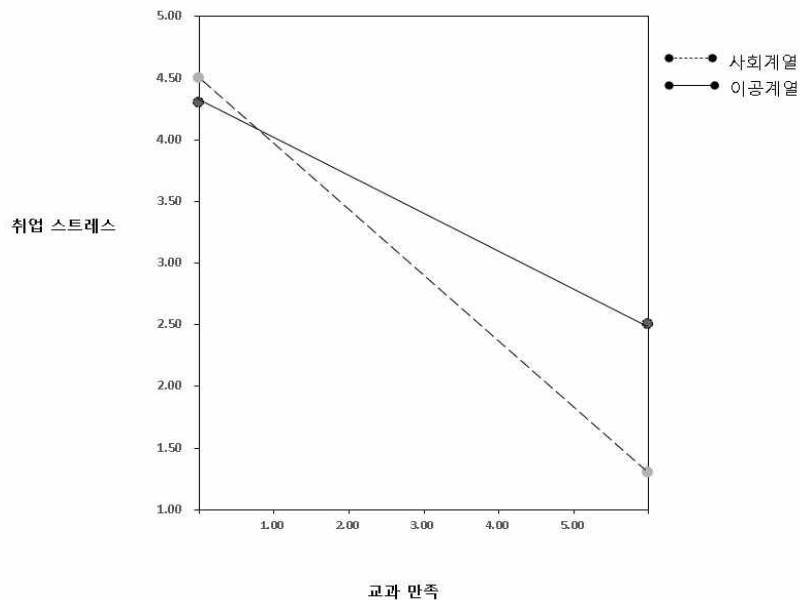
인과관계 가설 검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 만족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관계 만족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역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 관계에 있어 이공계열 전공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학생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 5.0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5,000개의 data set을 만들어 상한선(ULCI)과 하한선(LLCI) 사이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즉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존재하면 기각하고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하는 방법이다(Hayes,2017). 또한 조절 효과의 분석에 있어서 R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2가지가 동시에 유의성을 보이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조절효과 가설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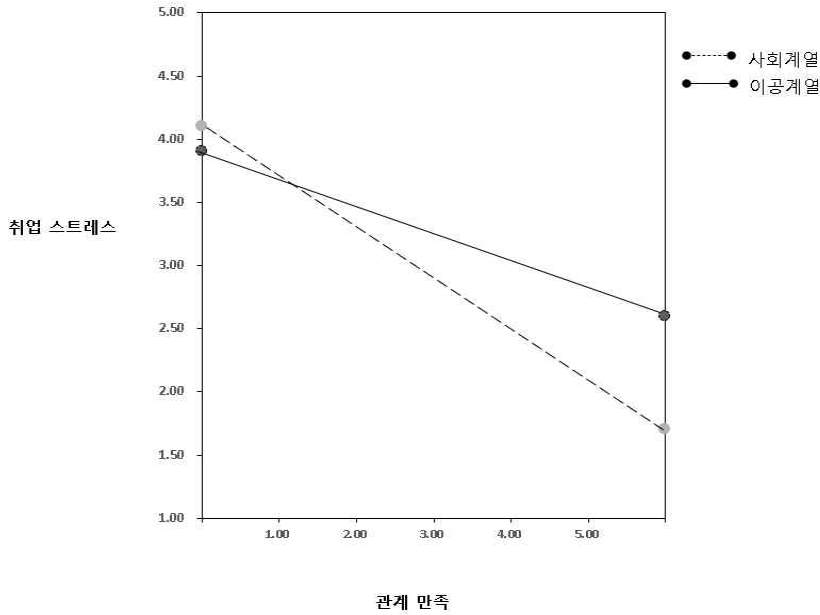
Path		coeff	t	LLCI	ULCI	Statistics	검정 결과
교과 만족 -> 취업 스트레스	상수	3.097	11.325	2.558	3.637	△R ² =.015 F=6.078 P=.014	채택
	교과 만족	-.636	-7.887	-.795	-.477		

	조절 변수	-.277	-3.229	-.446	-.108		
	상호 작용	.139	2.465	.028	.250		
관계 만족 -> 취업 스트레스	상수	4.622	17.145	4.090	5.153	△R ² =.016 F=6.466 P=.012	채택
	관계 만족	-.173	-2.144	-.331	-.014		
	조절 변수	-.281	-3.297	-.449	-.113		
	상호 작용	.147	2.543	.033	.260		

첫째, 교과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에는 이공계열 전공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하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상호 작용항의 LLCI와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R제곱은 1.5% 변화가 있었고 $p < .05$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 교과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둘째, 관계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에는 이공계열 전공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하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상호작용항의 LLCI와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R제곱은 1.6% 변화가 있었고 $p < .05$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4. 관계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2>, <그림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기울기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교과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관계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모두 이공계열 전공 학생보다 인문 사회계열 전공 학생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교과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 전공 집단의 조절 효과



<그림 3> 관계 만족과 취업 스트레스 간 전공 집단의 조절 효과

V.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교과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로 세분화해서 이것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영향 관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이 무엇이나 즉 이공계열 학과 전공인지 인문 사회계열 학과 전공인지에 따라 이들의 영향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샘플은 수도권 H대학교와 N대학 학생들로부터 취득하였다. 이공계열 110명, 인문 사회계열 110명씩 총 22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해 SPSS 24.0과 Process Macro 5.0을 이용하였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계 만족도 역시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과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관계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역시 이공계열 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 감소의 폭은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더 크게 나타났다.

5.2 논의 및 시사점

먼저 가설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전공 만족도의 하위 요소인 교과 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관계 만족도 역시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공 만족이라는 큰 덩치로 연구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 해서 교과 만족과 관계 만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세분화 한것도 역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공계열 전공학생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 학생들의 전공 만족(교과 만족, 관계 만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공학 계열 전공 학생들보다 인문 사회계열 전공 학생들의 영향 관계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시도이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정들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도 있고 낮추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전공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공 만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도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만족과 교수와의 관계 등에서 오는 관계 만족이라는 2가지 변인을 가지고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공 만족의 하위 요소 역시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것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둘째, 전공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석한 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학술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세분화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대학 생활을 통해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고 자신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것에 대해 만족스러워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나 교수법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실행이 요구된다. 둘째, 관계 만족 역시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관계는 특히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수들이 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5.3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이러한 학술적 및 실무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인 변수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이 제거된다면 다른 결과도 나올 개연성이 있다. 둘째, 설문 대상자가 수도권 소재 2개 대학의 4학년 재학생으로 한정되어있다.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Derry, S. and D. C. Brandenburg(1978), "Students' Ratings of Academic Programs : A Study of Structural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5), 772-778.
- Hayes, A. H.(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Lazarus and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 학부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학회지*, 1(1), 7-20.
- 김경남, 강은희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80-88.
- 김영선, 이현주(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411-420.

- 김지영, 한채정(2019),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5(1), 35-41.
- 김희정, 서민숙, 박다현(2021),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 전공 만족도, 자기 통제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83-90.
- 이연숙(2019),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 *관광연구*, 34(4), 167-184.
- 정백, 안선희, 오윤자(2021),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 : 가족지지 및 친구, 선배 지지의 조절 효과,” *취업진로연구*, 11(1), 159-181.
- 정병규(2020),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IPP형 장기현장실습 경험 유무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3(1), 87-99.
- 조철호(2017),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도서출판청람, 서울
- 조선일보, 2021. 09. 06.
- 한의진, 황보명(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 *관광연구*, 34(5), 203-222.

Effect of Subject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and Social Science College Students

Kang, Eun-jeong¹⁾
Chung, Byoung-gyu²⁾

Abstract

The stress on finding a job is also increasing in a situation where the difficulty in finding a job is aggravat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study, the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as subdivided into subject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and job-seeking stres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se majors according to their current major, that is, whether they majored in a science, engineering major or a social science major.

The population for the study was the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the 4th grade, and the research sample was obtained from students of H and N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 total of 220 people were analyzed, 110 people from science and engineering and 110 from social sciences. For analysis, SPSS 24.0 and Process Macro 5.0 were us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bject satisfaction had a negative (-) effect on job-seeking stress.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lso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job-seeking stres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ce, engineering students and social science students in the effect of subject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Fourth, in the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ience, engineering students and social science students.

Therefor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you are majoring in, the lower the job-seeking stress, and the extent of this decrease is social science students were larger than science, engineer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Keyword: Major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Moderating Effect

1)First Author, CEO of Jobs Hospital, beststory69@hanmail.net

2)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Ph.D, Sungkyul University, gljoseph@sungkyul.ac.kr

저 자 소 개

- 강 은 정(Kang, Eun-jeong)
- 잡스호스피탈 대표, 취업마인드맵 저자, 취업마인드맵 강사, 공기업 외부면접관, NCS 모의고사 출제 전문가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다중지능 전문강사, 전직지원 강사, 창업 및 창직 전문 강사, 비즈니스성품 연구원
<관심분야> : 취업 및 재취업, 창업 및 창직, 비즈니스 성품, 다중지능 등

교 신 저 자 소 개

- 정 병 규(Chung, Byoung-gyu)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빅데이터전문가1급, SNS마케팅전문가1급, 진로적성상담사1급
- NIPA, IIT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메타버스, Bigdata,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